2010-36
통권 315호

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9. 06(月)

경제이슈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의 제조업지수
8월 소비자물가 2%대로 안정세

경영노트
파워포인트 대신 그래픽 레코딩이 뜬다

차이나 리포트
중국 중산층 얼마나 되나?

저널브리프
신흥국 도시에 기회 있다

洗心錄
편리함의 함정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의 제조업지수[1] 전월대비 상승세

■ **8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대비 0.8%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PMI 지수** :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 속에서도 해외 수출 확대와 미국 기업들의 자본재 수요 확충에 따라 제조업은 회복세를 나타내며 PMI 지수는 56.3%를 기록
- **신규 주문, 고용, 생산 지수** : 신규주문지수는 0.4%p 하락한 53.1%를 기록, 고용지수는 1.8%p 상승하며 60.4%를 기록, 생산지수는 2.9%p 상승하며 59.9%를 나타냄
- **수출과 수입 지수** : 수출은 1.0%p 하락한 55.5%를 기록, 수입은 4.0%p 상승한 56.5%를 기록함

■ **미국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제조업 활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신규주문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 8월 소비자물가 2%대로 안정세

■ **신선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여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안정적 흐름이 지속**

- **근원물가**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하며 안정세를 유지
- **신선식품**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5.3%, 전년동월대비 20.0% 상승
- **생활물가지수** :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안정세
- **공업제품 및 서비스** : 국제유가 안정세 및 환율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며 공업제품 가격은 전월과 변동이 없었으나 전기료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상승하며 서비스는 전월대비 1.7% 상승

■ **기상 여건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물가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어서 물가 불안이 현실화될 우려**

---

1) ISM제조업지수는 미국 20개 산업 내 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화한 경제지표로 50%를 넘으면 경기확장을, 50%를 밑돌면 경기위축을 의미

□ 파워포인트 대신 그래픽 레코딩이 뜬다[2)]

■ **최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회의 시각 자료로서 파워포인트 대신 그래픽 레코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비주얼 퍼실리테이션(Visual Facilitation)이라고도 불리는 그래픽 레코딩은 회의의 내용을 담은 삽화로서 파워포인트처럼 시각 자료로 활용
- 파워포인트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회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반면 그래픽 레코딩은 회의 순서와 관계없이 한 장의 그림이 내용을 포함

■ **그래픽 레코딩의 활용은 창의적, 예술적 감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IT, 생활용품, 증권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식품업체 크래프트는 이미 2005년부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그래픽 레코딩을 활용하고 있음
- 이밖에 그래픽 레코딩을 활용하는 기업은 HP나 델과 같은 IT 기업, 존슨앤존슨 등의 소비재 기업, 찰스슈왑을 비롯한 금융 기업들이 있음

■ **그래픽 레코딩의 효과는 참석자의 활발한 토론 참여, 집중력 제고, 회의 내용 공유 및 확산 등에서 효과가 있음**

< 그래픽 레코딩의 효과 >

	내 용
활발한 토론 참여	●삽화의 화려한 그림과 글씨 등은 회의 참석자의 긴장감을 이완 ●슬라이드 순서에 따라 회의 방향이 정해져버리는 파워포인트와 달리 삽화를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토론
집중력 제고	●파워포인트처럼 어두운 조명이 아니라 밝은 상태에서 회의 가능 ●한 장의 그림에 회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에 집중 가능
회의 내용의 공유와 확산	●회의 후 참석자들은 그림 일부만 봐도 회의의 내용을 쉽게 기억 ●삽화의 사내 전시나 이메일을 통한 공유로 회의 내용의 확산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의 새로운 의견 개진 유도가 용이

2) 본 자료는 'Vision Statement: Tired of PowerPoint? Try This Instead(Harvard Business, 2010. 9)', '파워포인트는 식상해.., 美 그래픽 레코딩 뜬다(2010. 8. 31)'를 요약 정리함

□ 중국 중산층 얼마나 되나?

■ **최근 ADB(Asia Development Bank)가 중국 중산층이 8억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

- ADB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8억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에 달함
- 하지만 1일 3억 3천만 명에 달하는 하급 중산층의 경우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중국의 지출 및 소득 구간 별 인구 비중 >

(단위 : %)

	빈곤층 ($1.25 ~ $2)	중산층				부유층 ($20<)
			($2 ~ $4)	($4 ~ $10)	($10 ~ $20)	
지출(2005)	36	63	34	25	4	1
소득(2007)	7	89	23	47	19	4

자료 : ADB.
주 : 지출과 소득 자료는 2005년 구매력평가(PPP) 기준임.

■ **ADB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 ADB는 '매일 2~20달러를 소비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세계은행은 1인 일평균 소비지출이 1.25달러가 넘으면 극빈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 이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과는 거리가 있음
- 2010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비중을 전체 인구의 23% 수준(3억 명)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중국은 과거 10년 간 급속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빈부격차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미비로 '중산층'의 비중 증가는 미미**

-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신흥국 도시에 기회 있다[3)]

■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신흥국의 중형도시 또는 신도시 등이 성장하면서 이들 도시를 공략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동안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 city)에 초점을 맞춰왔음
- 한편 경기가 회복되고 신흥국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해당국의 기간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사업 기회가 존재함
- 또한 신흥국의 중형도시는 중산층의 본거지로 신흥국이 성장할수록 주택·유통사업 등 매력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신흥국가 도시 공략을 위한 10계명 >

제 언	내 용
1. 현재와 미래의 도시 커버리지 모델을 구축하라	●많은 기업들이 자사에 적합한 도시를 공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미래 도시에 대한 준비도 부족함
2. 도시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라	●신흥국가의 도시주거 환경 및 소비자 니즈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함
3. 소매 유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라	●급변하는 신흥국 도시의 소매·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시장 전략을 수립해야함
4. 인프라 관련 사업기회를 포착하라	●세그먼트별 대규모 인프라 관련 사업을 주시하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5. 주택·부동산 산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하라	●향후 유입될 수십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사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 기회를 모색
6. 신규 서비스 사업 기회를 주목하라	●새로운 도시 서비스 및 친환경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장기회 활용
7.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니즈를 활용하라	●향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금융 니즈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
8. 소비자 금융 사업 기회를 고려하라	●신흥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소비자 금융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9. 역량 있는 인재확보 방안을 구축하라	●역량 있는 현지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구축해야 함
10.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라	●검증된 사업모델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3) "도시개발사업에 기회 있다"(매경이코노미, 2010.8.18) 참조

□ 편리함의 함정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수많은 문명의 이기(利器)들이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컴퓨터와 전자계산기의 발명은 어렵고 복잡한 계산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낯선 지역에서도 간단히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은 곧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에 너무 길들여 있지는 않을까?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편리함에 감춰진 함정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계산기와 인터넷의 등장은 어려운 수학 공식과 계산 원리를 이해하거나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고력 형성을 저해하고, 간단히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정성이나 사랑은 느껴지기 힘들다. 과정은 생략하고 손쉽게 결과만을 얻으려는 편리함이라는 과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과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 소홀해지기 쉽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한 나머지 손쉽게 얻어지는 결과에만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는 배울 수 없을 것이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기 쉽다. 편리함에 감춰진 양면의 칼날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길이 멀어야 힘을 알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
– 명심보감(明心寶鑑)–